

# “건강이 우리

지역주민 집단 검사에서 간기능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에 살고 있는 김영숙씨는 지난 '85년 8월 21일, 효돈 단위농업협동조합 부녀부장 오옥자씨의 권유로 건강관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건강종합검사를 받았다.

간기능장애



◀ 부모님 공경하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 건강을 좌우 명으로 삼고 있다는 김영숙 씨 가족

#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장해를 발견, 투병생활로 건강을 되찾은 **金英淑씨**

평소 누구보다도 건강에 자신을 가졌던 그녀는 검사결과에서 뜻밖에도 간기능 이상을 발견해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쉽게 했다는 그녀의 경험담을 들어봤다.

## 생동감 있는 분위기 의 제주지부

新綠의 푸르름과 늦은봄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5월 중순의 따뜻한 날씨—.

서울 김포공항을 떠나는 KAL보잉 737機의 날씬한 승객은 떠나는 여행자의 마음을 마냥 부풀게 한다.

창공에서 내려다 본 서울시내의 조감도는 솟아 오른 빌딩의 숲과 함께 아파트群의 웅장함이 과연 국제도시의 면모를 한껏 과시해주는구나를 실감케 해준다.

機上에서 50분 남짓 비행을 하다보면 어느덧 푸른바다 저쪽에 濟州섬의 아름다운 경관이 눈앞에 들어 온다.

처음 오는 승객들은 山野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고 법석을 띤다. 대부분이 효도관광을 온 노인 및 부녀자들인 이들 관광객들은 탄성을 연발하기에 여념이 없다.

기자도 오랫동안의 제주 여행이라 뿌듯한 마음으로 타랩을 내렸다.

金秉基사무국장, 韓南錫과장이 기사를 반가히 맞이해 준다.

어제 저녁까지만해도 억수같이 퍼붓던 비가 오늘은 맑게 개었다면서 福 많은 사람은 틀리다고 곱곶 웃는다. 빗길에 씻긴 말끔한 아스팔트 위를

달려 舊제주 三徒1洞에 자리잡은 지부 사무실에 도착한 것이 10시 30분경—.

高소장, 미스成등 직원 여러분이 분주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먼저번 방문때의 제주지부 분위기와는 다른 생동감있는 분위기에서 어쩐지 사업활성화를 무언중에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이날의 스케줄을 김국장, 한과장과 협의한 뒤 예정했던 취재에 들어갔다.

울창한 수풀을 좌우에 두고 다양성있게 고불고불한 5·16횡단도로를 달려 서귀포시 하효동(下孝洞)에 도착한 것이 12시 20분경—. 취재를 목적으로 간 金英淑(38才)여사와 오옥자부장(孝敦單位農業協同組合婦女部長)을 반가히 만났다.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환한 얼굴에, 햇빛에 탄 조금은 검은 얼굴의 金英淑여사는 지성적인 매력이 넘쳐 흐른다.

### 건강엔 자신이 있었는데, 간기능 이상이라니…

『제가 건협 제주지부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 지난 85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오부장님의 권고로 한번 검사나 받아보자 하는 평범한 생각에서였지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세상에 태어나서 이렇다 할 큰 병 한번 앓아보지 않은 저로서는 항상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한여름내내 늘 피로 증세를 느껴왔지만 그저 몸살이거나 일을 좀 많이 해서 오는 피로겠거니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했었지요. 그랬는데



◀ “마음은 있지만건강 검사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병이 나아 겨우 약국 한번 찾아가는 현실에서 건협이 실시하는 주민 집단 검사는 큰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오옥자효돈단위농협 부녀부장은 말한다.

나온 결과를 보니 간기능 이상에다 간염까지 겹친 복합소견이 나왔지 뭐니까? 앞이 캄캄해 지더군요.』

그리하여 서울의 ○○병원에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누이를 찾았단다. 그 병원에서의 재진결과도 역시 마찬가지—.

이때같이 건협이 고마움을 느낀적도 없노라고 김여사는 감사해 한다.

기자는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진정한 의미를 이순간에 느끼고 있었다.

그후 김여사의 투병생활은 시작되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섭생, 그리고 될수있는 대로 피로를 피하며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했다. 그결과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있지 않느냐고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기도(?)한다.

## 건협을 새로이 인식시켰던 에피소드

오욱자 孝敦單位農業協同組合 부녀부장은 당시의 상황과 건강관리대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제주도는 2市2郡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단위 공장지대나 농공예마을등 사람이 많이 집단으로 모인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농촌조직인 관내 부녀회원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요. 우리 孝敦單位農協도 조합장 강우청님을 위시해서 부녀회 조직을 능률적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여기 계시는 金英淑여사도 부녀회 덕분에 검사를 받은 분 중의 한분이십니다. 健協 제주도지부와는 몇년전부터 유대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즉 집단검사 방법으로 건협과 협의해서 검사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조직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이지요. 일·시와 장소등을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20군데의 단위 농협이 있는데 주민검진사업은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검진일정이 오면 마이크 등 여러가지 홍보장비와 팜프렛을 동원하여 선전계몽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모여진 주민들을 孝敦단위농협과 부녀회, 그리고 건협직원들이 합심협력, 즐거운 마음으로 검진에 임하고 있단다. 오욱자부장은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들려준다.

『85년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협 검진반이 와서 집단검사를 했지요. 그중 부녀자 한분이 자궁암 초기증상이라는 검사소견

서를 받았읍니다. 그분은 기겁을 해서 제주시내 모병원 2군데를 찾아 재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병원에서 자궁암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견협에 항의도 하고 야단도 벌였지요. 생사람 잡는다고요. 그런데 그후 그부인이 자궁암으로 몸에 이상이 있어 수술까지 받은 예가 있었읍니다. 즉 오진은 그 병원에서 한것이지 견협의 검진결과는 옳았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지요. 그때부터 주민들의 인식이 싹 달라져서 견협의 검진반이 언제 오느냐는 전화문의등이 쇄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공신력이 높아져 스스로 검사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 검사 후 조기발견 하여 치료한 경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 문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검사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김영숙 씨

### 주민 스스로 검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

오부장은 계속 말을 잇는다.

『사실 말이지만 마음은 있지만 건강진단 한번 받기가 그리 쉽습니까? 병이 나야 겨우 약국 한번 찾아가는 현실에서 견협이 실시하는 주민을 위한 검사야말로 참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오부장은 농협에서 주선하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는데 대해 만족해 하는 것이었다.

## 건강이 우리 인생의 전부

金英淑씨가 옆에서 이야기를 이어 받는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효동 집단검진시 간기능장해를 발견한 것이지만 吳玉子부장의 권유로 받게 된 것이지요. 오부장의 성격은 매사 맡은 일에 충실하시고 모범주부로도 손꼽히는 일등 주부지요.

참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한테도 검사문의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견협에서 검사후 조기발견하여 치료된 것이 이중으로 선전계몽되어 너도 나도 검사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전 처녀 김영숙씨는 시중은행에 다니고 있었다. 미모인데다 발랄한 성격으로 각계로 부터 프로포즈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의 남편인 吳憲哲씨와 결혼하게 된 것은 그분의 인상이 첫째 좋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뚜렷한 인생철학에 반했었다고 은근한 자랑이다. 더구나 오빠친구였던 吳씨는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는 안정된 농가의 건실한 청년으로 생활에 안도감을 줄수 있어서 좋았단다. 꾸밈없고, 붓글씨에도 一家見을 가진 부군과의 결혼에 지금도 후회감이란 전혀 없단다.

김여사는 또 집안의 좌우명으로는 아빠가 독자기 때문에 첫째 부모님 잘모시기, 둘째 아이들 교육문제, 세째 건강가족을 못토로 삼아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그의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敬老孝親」이란 제목으로 서귀포시 주최 주부백일장에서 금상을 타기도 한 주부 수필가이기도 하다.

그녀는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맺었다.

『우리집 좌우명에도 나오듯이 건강은 우리 인생의 전부인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황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흙덩이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집안식구의 건강돌보기가 저의 제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독자기 때문에 2男3女를 두었지만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떳떳한 대한민국의 제2세 국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吳玉子부장은 도시근교에서는 下孝洞이 부촌이란 자랑도 슬쩍하면서 이번엔 서울을 올라가면 최신 시설로 장비가 갖춰진 서울지부 검사소를 꼭 한번 시찰하겠다는 기자와의 약속을 단단히 지키겠단다.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속에서 기자는 제주지부 사업이날로 번창일로에 있다는 金秉基 사무국장과 韓南錫과장의 희망찬 이야기에 차창을 스치는 구름이 더욱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상쾌한 아침 비행이었다.